석독 구결 '皆ㄷ', '悉ㅇ'와 고려 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金 永 萬*

1. 序論

釋讀口訣 자료에는 '다(all)' 또는 '모두'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표기 단위가 눈에 띈다. 佛經 原文의 '皆'에 口訣字 'ㄷ'을 붙인 '皆ㄷ'과 原文의 '悉'에 口訣字 'ㅇ'를 붙인 '悉ㅇ'가 그것이다. 한문에 나오는 '皆'와 '悉'은 共히 '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釋讀口訣 자료에서는 위와 같이 두 글자에 서로 다른 口訣을 달고 있다. 이것은 두 글자가 달리 읽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인들은 이 두 글자를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두 가지 다른 석독표기가 나타내는 單語가 각각 무엇인가를 밝혀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석독표기가 나타내는 단어는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현재에는 없어진 어떤 단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15세기 이후의 문헌은 물론이지만 그 이전의 鄕札 표기에도 눈을 돌려

* 영남대학교

보았다. 특히 석독 구결이 고려 시대에 나온 만큼 고려시대 鄕歌에서 이 두 가지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아 보는 데 力點을 두었다.

'皆ㄷ'과 '悉ㅈ'가 나타나는 釋讀口訣 文獻은 다음 두 文獻을 중심으로 한다.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南權熙 교수 소개, 『口訣硏究』 第1輯, 影印本)
『金光明經』 卷第三(南權熙 교수 소개, 복사본)

먼저 『華嚴經』에 나타난 "皆ㄷ"과 "悉ㅈ"의 용례를 보자.

口訣은 縱書로 된 原本에서 오른쪽에 붙은 것은 '위첨자'로 하고, 왼쪽에 붙은 것은 '아래첨자'로 하였다.

(1) 『華嚴經』의 예

a. 手ㅅ執ᄌᆞᆫᄀᆞ楊枝ㄴᆞ 當(ㅏ)願(ㅇᄆᆞᄀᆞ)衆生(ㄱ) 皆ㄷ 得ㅈᆞㅂ妙法ㄴᆞ 究竟淸淨ㅇᄒᆞᆫᄉᆞᆫᄀᆞᆷ (4:10)

b. 見(ㅈᆞᄀᆞᆫᄀᆞ)論議(ㅅᆞᆫᄃᆞᆫᄀᆞ)人ㄹᆞ 當(ㅏ)願(ㅇᄆᆞᄀᆞ)衆生(ㄱ) 於諸ㅣ異論ㅅᆞ 悉ㅈ 能支 摧伏ㅇᄒᆞᆫᄉᆞᆫᄀᆞᆷ (6:18)

c. 諦ㅣ觀ㅅᆞᆫᄉᆞᆫᄀᆞ 佛ㄹᆞ時ᄐᆞᆫᄀᆞ 當願衆生(ㄱ) 皆ㄷ 如ᄃᆞᆫᄋᆞᆫᄀᆞᆫ普賢(·) 端正嚴好ㅇᄒᆞᆫᄉᆞᆫᄀᆞᆷ (8:5)

d. 讚佛功德 當願衆生(ㄱ) 衆ㄱ德ㄹ 悉ㅈ 具ㅅᆞㅂ 偈歎ㅅᆞᆫᄆ 無ㅂᄒᆞᆫᄉᆞᆫᄀᆞᆷ盡ㅁᆞ (8:11)

e. 見聞ㅅᆞᆫᄃᆞ聽受ㅅᆞᆫᄃᆞ若ㄷ供養ㅅᆞᆫᄃᆞㅇㅗㅂᄒᆞ火ㄷᄒᆞㅂᄆᆞᄀᆞ 靡ㅣㄷᄋᆞㅂᄒᆞᆫᄉᆞᆫᄀᆞᆷ不ㅇᄆᆞᄐᆞᆫᄀᆞᄂᆞᆫᄆᆞ. 皆ㄷ 令ㅣㅁᆞ.獲ㅣ.安樂ㄹᆞ (14:10)

f. 塗香ㅈᆞ末香ㅈᆞ無價寶ㅈᆞ 如ᄃᆞᆫᄋᆞᆫᄀᆞㄹ是ᄃᆞ 皆ㄷ 從ㄷ手ㄷ中ㄹᆞ出ㅣㅅᆞㅂ 供養ㅅᆞᆫᄃᆞㅂᄒᆞᆷ 道樹ㅅᆞㄷ(·)諸ᄀᆞ 最勝ㅣᄆᆞ(?)…ᄀᆞㄹ (15:20-21)

g. 如是種種妙言辭 皆ㄷ 從掌內而開演 (16:3)[1]

---

1) 이하 필요한 경우 이외의 구결은 생략한다.

h. 隨諸衆生心所樂 悉ㅇ 以方便而滿足 (17:17)
i. 隨諸衆生行差別 悉ㅇ 以善巧而成就 (17:18)
j. 或以飮食上好味 寶衣嚴具衆妙物 乃至王位 皆ㄷ 能捨 令好施者 悉ㅇ 從化 (17:24-18:1)

다음은 『金光明經』에서 뽑은 예들이다.

(2) 『金光明經』의 예

a. 於一切境界ㅇ+ 皆ㄷ 悉ㅇ 通達ㄷㄱㄱ故ㄴ (2:18)
b. …欲煩惱行心 悉ㅇ通達 (4:6)
c. 無量對治諸法之門心 皆(ㄷ) 曉了 (4:6-7)
d. …成就(?)滿足 悉ㅇ 皆ㄷ 願求 (4:8-9)
e. 一切佛法了達攝受 皆ㄷ 悉ㅇ 願求 (4:9-10)
f. 三千大千世界無量無邊種種寶藏 皆ㄷ □盈滿 菩薩 悉ㅇ 見 (5:24-25)
g. 一切□□ 皆ㄷ 能摧伏 菩薩 悉ㅇ 見 (5:3-4)
h. 生死涅槃 皆ㄷ 是妄見 能度無餘 是波羅蜜義 (5:18-19)
i. 四方風輪種種妙花 悉ㅇ 皆ㄷ 散灑… 菩薩 悉ㅇ 見 (6:5-6)
j. 散多那花妙寶瓔珞貫飾身首 菩薩悉ㅇ見 (6:7-8)
k. …八公德水 皆ㄷ 悉ㅇ 盈滿 (6:10)
l. …菩薩 悉ㅇ 見 (6:12)
m. 一體衆獸ㄴ 悉ㅇ皆ㄷ 怖畏 … 菩薩 悉ㅇ見 (6:16-17)
n. …如意所願 悉ㅇ 皆ㄷ 成就 (6:24)
o. …破戒過失 皆ㄷ 淸淨故 (6:25-7:1)
p. 衆生相思惟一切種 皆ㄷ 無 (13:12)
q. 微妙之義 究竟滿足 皆[2] 能ㄷ成就 (13:20-21)

『舊譯仁王經』에는 '悉ㅇ'는 없고 '皆ㄷ'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는 鄭在永(1995)의 (20)을 참고하기 바란다.

2) '皆'에 붙어야 할 'ㄷ'가 실수로 '能'에 붙은 것이 분명하다.

위의 문헌들의 예를 보면 釋讀口訣의 경우 대체로 "皆"에는 구결자 "ㄷ"(叱)가 붙고, "悉"에는 "ㅣ(良)"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때로 불경 원문의 해당 한자들에 口訣吐를 붙이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것은 앞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생략한 경우로 생각된다. 원칙적으로 "皆ㄷ"과 "悉ㅣ"는 이 두 문헌의 고정적인 釋讀表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한글 문헌에서의 "皆ㄷ"과 "悉ㅣ"의 對應語 찾기

차자표기 일반의 문헌에서 "ㄷ(叱)"은 중세 또는 현대의 한글 맞춤법 표기의 "ㅅ"에 해당한다. "叱"은 음절말의 "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예 "始叱"(비롯)), 吏讀의 "叱分"(뿐) 등과 같이 이른바 된시옷으로도 쓰여 음절초의 硬音을 나타내기도 한다. 鄕札과 釋讀口訣의 경우는 주로 속격의 "ㅅ"을 나타내는 경우와 단어(형태소)의 말음 /-t/ 또는 /s/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앞뒤가 다 체언이 되어야 하는데, "皆ㄷ"의 경우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뒤에 체언을 수반하지 않고 동사가 오는 경우("皆ㄷ得妙法")와, 형용사가 오는 경우("皆ㄷ淸淨")가 있는데 이들 "ㄷ"은 속격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한 단어의 말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皆"를 훈독하였을 때의 우리말 단어의 마지막 자음 "ㅅ"(/t/ 또는/s/)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悉ㅣ"도 마찬가지로서 뒤에는 반드시 동사나 형용사가 와서 부사임을 알 수 있으며, "悉ㅣ"의 "ㅣ"도 역시 "悉"을 訓讀하였을 때의 우리말 단어의 끝 모음이나 접미사 등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皆ㄷ"과 "悉ㅣ"의 두 표기체는 각각 하나의 단어(어절)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과 대응하는 고유어를 알아 내기 위하여 漢文 原文에 나오는 '皆'와 '悉'의 뜻을 살펴 보기로 하자.

"皆"는 우리 字書類에서 "다"라고 訓하고 있다.

(3) a. "皆 : 다 기" <類合>
b. "皆 : 다 기" 光州本 <千字文>
c. "皆 : 다 기" <註解千字文>
d. "皆 : 다 개" 池錫永: <字典釋要>

번역에서도 儒家 경전에는 "皆"를 거의 "다"라고 번역하였다.

(4) a. "우리 二臣은 다 欲디 아니ᄒᆞ노이다(吾二臣者皆不欲)" <論語諺解(季氏)>
b. "사ᄅᆞᆷ이 다 可히 ᄡᅥ 堯舜이 되리라(人皆可以爲堯舜)". <孟子諺解(告子下)>
c. "ᄒᆞᆫᄀᆞᆯᄀᆞᆮ티 다 몸 닷그모로ᄡᅥ 本을 삼ᄂᆞ니라(壹是皆以修身爲本)" <大學諺解(經一章)>
e. "發ᄒᆞ야 다 節에 中홈을 和ㅣ라 니ᄅᆞᄂᆞ니(發而皆中節謂之和)" <中庸諺解(1장)>

佛經도 한글 번역본은 "皆"를 "다"라 번역하였다.

(4)' a. "다 이 物이디위(皆是物)" <楞嚴經諺解(二50a)>
b. "너희 모ᄃᆞᆫ 사ᄅᆞᆷ돌히 다 내 아ᄃᆞ리오(汝諸人等皆吾子)" <法華經諺解(二149a)>
c. "ᄌᆞ오롬과 雜念괘 다 ᄆᆞᅀᆞ매 드러 읏드미 ᄃᆞ외리라(昏沈掉擧皆入作得)"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2a)>
d. "萬象이 다 낟ᄂᆞ니(萬象皆現) <六祖法寶壇經諺解(中38b)>
e. "닷곰 니ᄅᆞ와도ᄆᆞᆫ 다 妄히 뮈요미오(起修皆妄動) <六祖法寶壇經諺解(中76b)>
f. "惡業과 愚昧ᄃᆞᆯ햇 罪ᄅᆞᆯ 다 懺悔ᄒᆞ야(惡業愚昧等罪 悉皆懺悔) <六祖法寶壇經諺解(中23b)>
g. "憍誑 嫉妒 等 罪ᄅᆞᆯ 이제 ᄒᆞ마 아라 다 영히 긋고(憍誑嫉妒

等罪 今已覺悟 悉皆永斷) <六祖法寶壇經諺解(中26a)>

이것으로 보면 (1), (2)에 든 『華嚴經』과 『金光明經』의 "皆"도 釋讀에서는 "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皆"에 붙어 있는 "ㄷ"이라는 釋讀表記로 보아 여기 "皆"의 訓은 "다"가 아니고 "ㅅ"(/s/ 또는 /t/)으로 끝나는 다른 어떤 단어(어절)라야 된다.

鄭在永(1995)에서는 "皆ㄷ'은 부사 '다' 또는 동사 '다ᄋᆞ-'에 수식어(부사어, 관형어)에 붙는 'ㅅ'이 덧 붙은 것 즉 '*닷' 또는 '*다ᄋᆞᆺ'이라고 보았다. '다'가 부사인데 '*닷' 등도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데 대하여 鄭교수는 중세국어에서 '쟝ᄎᆞ(將次)'와 '쟝ᄎᆞᆺ', '본ᄃᆡ'와 '본ᄃᆡᆺ', 'ᄌᆞᄆᆞ'와 'ᄌᆞᄆᆞᆺ'이 병용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고려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으리라 추측하였다. 鄭교수의 이러한 견해는 논리적으로 보아, 그 가능성을 누구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皆ㄷ'의 독법에 대한 試案의 하나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살펴 볼 '悉ᄋᆞ'가 '다' 또는 '다아'와 대응하는 것을 생각할 때, '皆ㄷ'을 鄭 교수의 견해대로 '*닷' 또는 '*다ᄋᆞᆺ'과 같이 읽는다면, 같은 문헌 안에서 '皆ㄷ'과 '悉ᄋᆞ'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 예컨대, (2a)와 (2m)를 읽으면

(2)′

a. 於一切境界ᄋᆞ+ 皆ㄷ 悉ᄋᆞ 通達ㅌㅏㄱᄀᆞᆫ故ㄱᆞ ⇒ 一切 境界에 닷(다ᄋᆞᆺ) 다 通達커온ᄃᆞ로

m. 一切衆獸ㅣ 悉ᄋᆞ皆ㄷ 怖畏 … ⇒ 一切 衆獸을 닷(다ᄋᆞᆺ) 다 怖畏 …

와 같이 "*닷 다(皆ㄷ 悉ᄋᆞ)" 또는 "*다 닷(悉ᄋᆞ 皆ㄷ)'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처럼 語源的으로나 音相으로나 같은 계열의 말이 연속되는 것

이 아무리 直譯文이라도 문체상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다음에는 '悉'의 뜻에 대해 살펴 보자.

"다, 모두"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漢字는 중국 고대에는 "皆" 한 가지밖에 없었고, 여기 대해 "悉"은 원래 "상세히 알다, 밝히다"의 뜻이었다.

이 글자는 『訓蒙字會』를 비롯한 字書類에는 잘 등장하지를 않는다. 그것은 중국 古典에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開化期에 나온 池錫永의 『字典釋要』에서 "悉"은 "알아다할 실"이라 주석되었다.

이 글자가 중국에서 자주 쓰이게 된 것은 西域의 불경을 漢譯한 때부터로서, 이 글자가 漢譯 佛經에서 자주 쓰이면서 차차 "다"의 뜻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悉"은 옛날의 儒家 經傳에서 독점적인 地位를 차지하던 "皆"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悉"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漢語의 변천의 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글자는 역시 "知, 審, 見, 聽" 등 知覺動詞와 함께 쓰이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金光明經에는 "菩薩悉見"이라는 말이 되풀이해 나오는 것이다. 池錫永의 "알아 다할"은 "알다"와 "다"를 합친 묘한 주석으로, '知悉'이란 말을 연상하게 한다.

"悉"이 순수한 "다, 모두"의 뜻으로 쓰인 것은 佛書에서였다. 西方에서 들어온 佛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하여 佛書에는 두 글자가 한 단어를 이룬 "皆悉", "悉皆"가 자주 나타난다. 앞의 예문 (2)의 a, d, e, i, k, m, n 등에 이러한 예가 담겨 있다.

아무튼 '悉ᄋᆞ'는 '皆ㄷ'과는 달리 고유어 '다' 또는 '다아'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悉ᄋᆞ"는 "다" 말고도 다음과 같은 "모다"의 표기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5) a. 九龍이 <u>모다</u> 싯기ᄉᆞᄫᆞ니 <月印千江之曲>
b. 이러ᄐᆞᆺ ᄒᆞᆫ <u>모다</u> 아ᄂᆞᆫ 大阿羅漢ᄃᆞᆯ히며 <釋譜詳節(十三2b)>

c. 우리 모다 홈믜 가새이다(咱會同着一時行) <朴通事(初刊上 9a)>

여기서 "모다"는 "몯-"(會)의 副動詞에서 발달한 것이고 15세기 이래의 한글 문헌에서도 副動詞的으로 쓰인 것 같은 예들도 많으므로 완전히 부사화한 "다"에 비해 가능성의 정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뒤의 鄕札 표기에서 보아도, '모다'보다는 '다(아)'가 '悉ᄀᆞᆮ'에 더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우선 '悉ᄀᆞᆮ'의 대응어는 일단 '다' 또는 '다아'로 보아 둔다.

이제 '皆ᄀᆞᆮ'의 대응어를 다시 한 번 추구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鄭在永(1995)에서 '皆ᄀᆞᆮ'의 대응어를 '*닷' 또는 '*다ᄉᆞᆺ'으로 재구한 것을 보았거니와, 일단 '悉ᄀᆞᆮ'를 '다'로 보고 나면 '皆ᄀᆞᆮ'을 '*닷' 또는 '*다ᄉᆞᆺ'으로 재구한 것은 문체상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이 두 가지가 연속되어 있는 (2 a, d, e, i, k, m, n)의 경우에 "*닷 다" 또는 "다 *닷"으로 읽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皆ᄀᆞᆮ'은 語源的으로나 音相으로나 語感으로나 '다'와는 좀 다른 고유어일 것으로 想定하고 대응어를 추구해 보기로 한다.

15세기 문헌에서나 현대국어에서 "皆"의 뜻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다" 이외에 "모도, 모두, 모다" 등 몇 가지가 있으나 이들 단어는 뜻으로서는 "皆"의 의미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음운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음이 '-ᄀᆞᆮ'인 '皆ᄀᆞᆮ'의 대등어가 아니다.

"-ᄀᆞᆮ"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의미상으로 "皆"와 비슷한 점이 있는 말로는 "다ᄆᆞᆺ, 다못"이라는 중세 문헌어가 떠오른다.[3]

(6) a. ᄀᆞᄅᆞ몬 논ᄂᆞᆫ 비와 다ᄆᆞᆺ ᄆᆞᆰ도다(江與放船淸) <杜詩諺解(初刊本七11)>

3) "다ᄆᆞᆺ"이 古形이고 "다못"은 "ㆍ"가 없어지면서 "ㅗ"로 원순모음화함으로써 생긴 어형일 것이다.

b. 다몬 배와 다ᄆᆞᆺᄒᆞ도다(共沈舟) <杜詩諺解(初刊本十五33)>
c. 公子와 다ᄆᆞᆺᄒᆞ야(共公子) <杜詩諺解(重刊本十五6)>

그러나 이 말은 중세어에서 '더불어, 함께'의 뜻을 가지고 있어 漢文의 前置詞 "與" 또는 동사 "共"을 번역하는 데 쓰인 말로서 "皆"와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 혹시 그 전에는 "皆"의 뜻으로도 쓰였을지는 모르지만 단정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로 "도모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오늘날은 "도무지 모르겠어", "도무지 안 되겠어"와 같이 부정적인 말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7) 일호도 탁지의 경비를 모손치 아니하시고 도모지 너부로 ᄌᆞ비하시니 <한중록>

"도모지"는 '一概<同文類解>' '大概<譯語類解補>' 등으로 漢譯되는 것으로 보아 뜻으로는 앞의 "다ᄆᆞᆺ"보다는 더 "皆"의 뜻에 가깝다 하겠으나, 음운으로 보아 "-ㄷ"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도라지(桔梗), 가지(枝)"의 古形이 "도랒(도랒), 갖"인 것으로 보아 "도모지"의 古形도 "*도몾"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말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점과 혹시 한자어가 아닌가 하는 점이 단정을 주저하게 한다.

"다몾"과 "도모지"는 "다모기(竝只)"와 함께 어원적으로 '皆ㄷ'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며, 중세국어에서 굳이 '皆ㄷ'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다면, 이 단어들이 가장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皆ㄷ'과 '悉ㅈ'에 대응하는 말을 찾아 보았으나, '悉ㅈ'는 '다(아)'에 대응할 가능성이 인정되나(이것은 뒤의 향찰 표기에서도 뒷받침된다), '皆ㄷ'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응어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借字表記法이라는 더 오래된 자료에서 '皆ᄀᆡ'과 '悉ᄉᆞᆯ'에 對應되는 單語를 다시 찾아 보기로 한다.

3. 鄕札 등에 나타나는 "皆" 및 "盡-"에 대한 고찰

3.1. '皆ᄀᆡ'에 대응하는 借字를 찾아 보기 위한 수단으로 地名 등 고유명사 표기 및 향찰에서 '皆'가 들어간 예부터 더듬어 보기로 하자.

地名 표기로 쓰인 借字 가운데 '皆'가 들어간 것으로 『三國史記』 地理志(卷35)의 "遇王縣本高句麗皆伯縣"이 있으나, '皆'는 音讀으로 '王'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우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4]

3.2. 三國遺事 所載 鄕歌에는 慕竹旨郎歌의 "去隱春皆理米"의 '皆'는 音借로 본 이가 半이나 되고, 訓借[다]로 본 경우에도 뜻을 '皆'로 본 이는 小倉進平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訓의 音'을 딴 것에 불과하므로, 釋讀口訣文의 '皆ᄀᆡ'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高麗 시대 均如의 普賢十願歌에는 다음과 같이 '皆'가 여러 번 나온다.

(8) a. 皆佛體/必于化緣盡動賜隱乃 <請佛住世歌>
b. 伊知皆矣爲米 <請佛住世歌>
c. 我佛體/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 <常隨佛學歌>
d. 然叱皆好尸卜下里 <常隨佛學歌>
e. 皆佛體置然叱爲賜隱伊留兮 <常隨佛學歌>
f. 皆吾衣修孫/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普皆廻向歌>

우리는 이들 '皆'가 어떤 뜻, 어떤 音으로 쓰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같은 고려 시대의 釋讀口訣文에 나오는 '皆ᄀᆡ'과의 一致 여부를 알아 보

4) 잘 알려진 바와 같이 '皆'의 음은 光州千字文에서 '王'을 "긔ᄌᆞ 왕"이라 한 그 "긔-"에 대응하고, '遇'는 '맞-'이니, '伯'의 訓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기로 하자. 「普賢十願歌」("歌"라 약칭)의 '皆'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필자는 拙稿(1991)에서와 같이 노래의 사상적 바탕이 된 『華嚴經』의 普賢行願品("經"이라 약칭)의 해당 부분과 「均如傳」에 실린 崔行歸의 漢譯詩("頌"이라 약칭)의 해당 부분을 찾아 본 결과, 대략 다음(9)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9)

순위	主題名	歌	經	頌	備 考
a.	請佛住世	皆佛體	諸佛如來	極微塵數 聖與賢	'모든, 많은'
b.	請佛住世	伊知皆矣	(將欲示現槃涅槃)	(欲示泥洹歸寂滅)	指示語 ('-긔'?)
c.	常隨佛學	皆往焉世呂	處種種衆會	[해당 어구 없음]	'모든', '다, 모두'
d.	常隨佛學	然叱皆爲…	[해당 어구 없음]	[해당 어구 없음]	指示語 ('-긔'?)
e.	常隨佛學	皆佛體置	一切如來	해당 어구 없음	'모든'
f.	普皆廻向	皆吾衣修孫一切善陵	所有功德 (皆…)	從初至末所成功	'모든'

(9)를 보면, 여섯 예 가운데 b와 d는 音讀일 가능성이 많고,[5] 나머지는 訓讀임이 확실한데 '모든'(또는 '많은')과 같은 관형사(관형어)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f의 경우는 얼른 보면 부사일 것 같으나 다음 句의 '善陵'까지가 피수식어라고 볼 때, 관형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c의 경우는 '往'에 걸린다고 보면 副詞語이나, '世呂'에 걸린다고 보면 冠形語이다. 音讀의 경우는 '긔' 정도가 아닌가 한다.

결과적으로 「普賢十願歌」 속의 鄕札 '皆'는 '다'라는 뜻보다는 주로 '모든'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漢文에서는 '諸, 一切'에 해당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5) 여기서 b의 '伊知皆矣'와 d의 '然叱皆好-', 그리고, (8)의 '然叱爲-'는 비슷한 指示語 '이러-, 그러-, 저러-'와 관계되는 것 같이 보여 흥미롭거니와 어근 끝의 '-긔(게)'를 '皆'로 적은 것 같다. 諸家의 해독 중에 이와 같이 읽은 예가 많은 것도 일리 있는 일이다.

普賢行願品(넓은 뜻으로는 華嚴經) 原文의 '皆'는 鄕札에서는 역설적으로 '皆'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다시 말하면 불경 원문의 '皆'를 飜譯 또는 飜案하는 데서 고려인들은 鄕札로 '皆'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 달리 썼다.

그래서 '皆'를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는 釋讀口訣文(곧 '原文+口訣')에서 原文 '皆'에 'ㄴ'이라는 口訣을 덧붙임으로써 그 말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3.3. 다음으로 우리는 鄕歌에서 다른 글자로 표기된 글자 가운데 뜻이 漢文의 '皆'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 '盡良', '盡尸', 또는 '盡'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자.

(10) a. 法界滿賜隱佛體/九世盡良禮爲白齊 <禮敬諸佛歌>
b. 必只一毛叱德置/毛等盡良白乎隱乃兮 <稱讚如來歌>
c. 必于化緣盡動賜隱乃 <請佛住世歌>
d. 生界盡尸等隱/吾衣願盡尸日置仁伊而也 <總結無盡歌>

이들도 모두 均如의 향가이므로, "經"과 "頌"에서 대응 어구를 찾아보도록 한다.

(11)

순위	主題名	歌	經	頌	備考
a.	禮敬諸佛	九世盡良禮爲白齊	悉以淸淨身語意業 常修禮敬; 此禮敬無有窮盡	禮敬寧辭浩劫長(다함 없는 세월 禮敬을 마다 하리까?)	'다아, 다'
b.	稱讚如來	毛等盡良白乎隱乃兮	我此讚嘆無有窮盡	縱未談窮一毛德	'다아, 다'
c.	請佛住世	化緣盡動賜隱乃	[해당 어구 없음]	於此浮生化緣盡	'다아, 다'
d.	總結無盡	生界盡尸等隱 吾衣願盡尸日	(衆生界盡) (我[ ]乃盡)	生界无窮志豈移	'다올'

여기서 우리는 '盡良'과 '盡'은 동사 '다ᄋᆞ-'의 부사형 '다아' 또는 부사 '다'에 대응하고, '盡尸'은 동사 '다ᄋᆞ-'에 어미 '-ㄹ'이 붙은 '다올'에 대응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歌의 "盡良"이 經의 "悉"에 대응하는 <禮敬諸佛>의 예이다. 이것으로 보면, 만약 『華嚴經』의 普賢行願品도 구결을 달았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의 '悉'에는 아마도 '-ㅈ'라는 구결을 붙여 '悉ㅈ'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鄕札 '盡良'은 바로 釋讀口訣文에서는 '悉ㅈ'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鄕札에서 '悉ㅈ'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즉 '悉ㅈ'에 대당하는 鄕札 표기는 '盡良'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鄕札 表記에 쓰인 '皆'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불경 원문의 '諸'에 대응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의 '皆ㄷ'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데 다음 장에서 다시 鄕札 표기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알아 보기로 하자.

4. 均如 鄕歌의 "頓部叱"과 "皆ㄷ"의 비교

앞 章에서 우리는 '皆ㄷ'과 '悉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鄕札에 쓰인 '皆'나 '盡'과 같은, 뜻이 '다'와 관계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핀 것은 訓讀 문자에 한정되었던 것에 생각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아 있는 '皆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音讀으로 보이는 鄕札 단위로 눈을 돌리기로 하자.

여기서 필자는 연전에 均如 鄕歌에 나오는 '頓部叱'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그 뜻과 讀法을 밝혀 보고자 鄕歌 자체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이 鄕歌와 관계 깊은 『華嚴經』의 普賢行願品(經) 및 崔行歸의 漢譯詩(頌)와도 대조해 본 결과 '頓部叱'은 "經"과 "頌"의 "皆"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拙稿 1991), 따라서 '頓部叱'은 漢文의 '皆'에 대당하는 고유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釋讀口訣文의 '皆ㄷ'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생각이 미

치지 못하였다가,[6] 이 번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향찰의 '頓部叱'을 연상하게 된 것이다. '頓部叱'이 '皆'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頓部叱'과 '皆七'이 '叱(七)'을 末音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均如 鄕歌에 나타나는 "頓部叱"이 '皆'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되, 자세한 것은 拙稿(1991)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그 요점만 제시하고 상세한 논의는 그 쪽으로 미룬다.

「普賢十願歌」 11首에는 다음과 같이 "頓部叱" 또는 그 생략형 "頓叱"이 여러 번 나온다.

(12) a. "今日部頓部叱懺悔" <懺悔業障歌>
b.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 <隨喜功德歌>
c. "吾焉頓叱進良只" <請轉法輪歌>
d. "吾焉頓部叱逐乎友伊音叱多" <常隨佛學歌>
e. "佛體頓叱喜賜以留也" <恒順衆生歌>
f.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普皆廻向歌>

이제 하나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華嚴經』의 普賢行願品("經"), 崔行歸의 漢譯詩("頌")을 비교해 보자.

먼저 「懺悔業障歌」부터 보자.

---

6) 필자는 1980년대에 金敏洙 선생의 권유에 의하여 沈在箕·南豊鉉·李東林 세 분의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에 대한 논문을 읽고, "舊譯仁王經 釋讀表記 小考(I)"라는 조그만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拙稿 1986). 필자는 이 논문에서, 그 전까지 "와"라고 읽던 "ᄉᆞ"를 "여(亦)"로, "焉, 与(與)"로 읽던 "ᄀᆞᆷ"를 "져(齊)"로 "ᄀᆡ"를 "뎌(彼)"로 읽어 나중에 학계의 인정을 받은 바도 있고, "ᄆᆞ"는 여태까지 字典 등에서 "마치(망치) 마"라고 하여 순전히 한국에서 만든 漢字로 알고 있는데 대해 그 原字가 "每"라는 의견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석독구결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皆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가, 昨今에 구결학회 모임에 자주 나가서 배우는 동안에 '皆七'의 존재가 눈에 띄게 된 것이다.

(13) a. 歌: "今日 部 頓部叱 懺悔" (오늘 部(주비?) "頓部叱" 참회한다)
b. 經: "一切我今皆懺悔" (일체를 나는 지금 참회한다.)
c. 頌: "今願懺除持淨戒 永離塵染似靑松" (이제 참회하여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歌의 "頓部叱"은 經에서 "皆"와 정확하게 대응되고 있다. 그러나, 頌에서는 직접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것이 없다. "永離(영원히 떠난다)"의 "永"이 간접적으로 "皆"와 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隨喜功德歌」를 보자.

(14) a. 歌: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 (닦은 것은 (남이 닦은 것도) 모두 내가 닦은 것…)
b. 經: "一切菩薩所修難行苦行 志求無上正等菩提廣大功德 我皆隨喜" (… 남의 선행도 다 내것처럼 기뻐…)
c. 頌: "他造盡皆我自造" (남이 지은 것도 다 내가 지은 것처럼)

여기서 歌의 "頓部叱"은 經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말이 없다. 다만 굳이 찾는다면 "一切", "皆" 등이 간접으로 대응하나, 이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에 비해 頌에서는 "皆"가 정확하게 "頓部叱"에 대응된다.

<請轉法輪歌>에서의 "頓叱"을 보자.

(15) a. 歌: "彼仍反隱 法界之叱佛會阿希 吾焉頓叱進良只" (많은 법계에 나는 "頓叱" 나아가)
b. 經: "佛陀成道數難陳 我皆往詣而親近" (나는 다 나아가 친근히 한다)
c. 頌: "我願皆趨正覺因" (나는 正覺因에 다 나아가기를 바란다)

여기서는 經과 頌의 "皆"가 모두 歌의 "頓叱"에 정확히 대응한다.

다음으로 <常隨佛學歌>의 "頓部叱"을 보자.

(16) a. 歌: "吾焉頓部叱逐乎友伊音叱多" (나는 "頓部叱" 좇아 가겠습니다)
b. 經: "如是一切 我皆隨學" (나는 다 따라 배운다)
c. 頌: "如上妙因摠隨學" (이같은 妙因을 다 따라 배운다)

여기서는 歌의 "頓部叱"이 經의 "皆"에 대응하고, 頌에서는 "摠"에 대응하는데 "摠"도 역시 "皆"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恒順衆生歌>의 "頓叱"에 대해서 살펴 보자.

(17) a. 歌: "佛體頓叱喜賜以留也" (부처가 "頓叱" 기뻐하신다)
b. 經: "則令一切如來歡喜" (모든 如來가 기뻐한다)
c. 頌: "可知諸佛喜不輕" (모든 부처의 기쁨이 적지 않다)

여기서는 歌의 "頓叱"에 해당하는 "皆" 따위는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볼 때, 經의 "一切"와 頌의 "諸"가 여기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歌의 大意는 "부처가 '頓叱' 기뻐한다"는 것인데, 經의 大意는 "모든(一切) 如來(부처)가 기뻐한다"는 뜻이니,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부처가 다 기뻐한다"는 말이 되니, 역시 "皆"에 해당된다. 頌의 대의는 "모든(諸) 부처의 기뻐함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겠다"가 되니, 바꾸어 말하면 "부처가 다(모두) 기뻐한다"가 된다.

마지막으로 <普皆廻向歌>의 "頓部叱"을 보자.

(18) a. 歌: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모든 善陵을 "頓部叱" 돌려 준다)
b. 經: "所有功德 皆悉廻向" (공덕을 다 돌려 준다)
c. 頌: "自初至末所成功 廻與一切含靈中"[7]

7) 이 頌 "쌓아 쌓아 온 功德(所成功)을 다(一切) 衆生(含靈)들에게 돌려 준다"는 뜻이다.

여기서 歌의 "頓部叱"은 經의 "皆悉"에 대응되며[8] 頌에서는 '一切'에 대응하지만 이것을 歌의 문맥으로 바꾸면, '會-'라는 동사의 수식어가 되니 부사 '皆'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均如 鄕歌의 "頓部叱" 또는 "頓叱"은 華嚴經의 "皆"에 대응하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均如의 普賢十願歌는 均如가 華嚴經의 普賢行願品의 사상을 鄕歌라는 형식에 담아서 鄕札이라는 차자 체계로 적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經의 원문의 '皆'는 모두 '頓部叱'이라는 말로 바꾸었다. 그런데, 만약에 균여가 華嚴經의 내용을 鄕歌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皆'는 어떤 말로 번역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19) 균여는 아마 '皆'를 '頓部叱'이라는 말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均如의 번역 강독을 들은 사람이 華嚴經 원문에다 구결 표기로 한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그 대답도 간단하다.

(20) 均如는 아마 원문 '皆' 오른쪽 옆에 口訣字 'ㄷ'을 써 넣어 '皆ㄷ'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유치한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9)와 (20)의 관계가 바로 '頓部叱'과 '皆ㄷ'의 관계이며, 이것은 鄕札과 釋讀口訣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頓部叱'과 '皆ㄷ'은 같은 말에 대한 다른 表記다. 곧 原文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 적은 것이 '頓部叱'이고 原文이 있는 조건에서 원문을 살려서 적은 것이 '皆ㄷ'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鄕札식이고

8) "皆"와 "悉"은 거의 같은 뜻인데 釋讀口訣에서는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皆悉" 또는 "悉皆"와 같이, 합쳐서 "모두, 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후자는 釋讀口訣식이다. 전자는 音借이고 후자는 訓借가 爲主이다.

5. '頓部叱=皆ㄴ'의 讀法에 대하여

그러면 '頓部叱'은 어떻게 읽혔던 것일까? 먼저 선행한 연구자들의 독법을 보자.

小倉進平의 '頓(돈)ㅅ', 梁柱東·池憲英의 '頓部(돈부)ㅅ', 金善琪의 '돈북', 金俊榮의 '돈부ㅅ' 등은 意味는 어떻든 音讀인데 반해, 金完鎭의 'ᄇᆞᄅᆞᄇᆞᆺ(頓部叱)', 'ᄇᆞᆺ'(頓叱)은 訓讀이다. 이에 비해 兪昌均의 '頓(돈) 주비(部)ㅅ'은 훈독과 音讀을 겸한 것이다.[9]

이 중에서 필자가 일단 취하고 싶은 것은 金俊榮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金俊榮은 이미 필자와 같이 '頓部叱'의 뜻을 '모두, 다, 일체'로 보았고, 모든 글자를 音讀한 것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다만 '頓部叱'이라는 차자표기가 오늘 우리가 쓰는 한자음과 같이 꼭 '돈부ㅅ'이라는 音을 가진 우리말을 적은 표기였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다. 이것은 '-叱'이 정통 漢字音은 '질'로 읽히지만 借字로서는 '-ㅅ'으로 읽히는 것과 같이 '頓部-'도 정통 漢字音 '돈부-'와는 다른 소리를 적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頓'과 '部'의 음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頓'은 說文解字에 '머리를 숙인다(下首也)'는 뜻으로 풀이했으며, '頁(머리 혈)'이 形符이고, '屯(둔)'이 聲符인 形聲文字로 분류된다.[10] 韻書

---

9) 널리 알려진 다른 분들의 저서는 새삼 소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兪昌均의 『鄕歌批解』(1994, 螢雪出版社)는 최근에 나온 것이기에 여기 소개한다. 이 책에 따르면, '頓部叱'의 '頓'은 小倉進平, 梁柱東의 설을 계승·발전시켜, '頓敎'(大乘敎)의 뜻으로, '部'는 주비(무리)로 보아 '敎徒'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10) 그러나 聲符인 '屯'도 '頓'의 뜻과 관계가 있다. 즉, '屯'의 小篆字는 원래 식물의 싹이 처음으로 땅의 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모양을 본뜬 것으로 地表의 抵抗을 받아서 멈춘 것('停頓')을 나타내었다.

에는 '都困切'이라 하였으니 우리 音이 '돈'(東國正韻, 訓蒙字會)이 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음운학자들이 '頓'의 古漢音을 'twən' 등으로 추정하는 것, 현대의 拼音字母로 dùn(돈)이 된 것과 맥이 통한다.

그런데 '頓'은 중국에서 일찍 다른 민족의 고유명사를 적을 때 쓴 일이 있는데, 漢代 초기의 匈奴의 單于(선우)의 이름 '冒頓'이 그것이다. 이 사람의 이름이 흉노족의 말로는 어떤 소리였는지는 몰라도 古今韻會擧要 등에는 "當沒切 音毒"으로 되어 있다. 反切로 보아서는 우리 音으로는 "돌"에 해당되는데, 東國正韻의 '돐'이 바로 이것을 반영한 것이다.[11] 다만 反切과는 달리 直音 '毒'은 '독'으로 읽어야 할 것 같아 혼란이 생긴다. 臺灣에서 나온 <形音義綜合大辭典>에는 "杜沃切 音毒"이라 하여 反切과 直音을 일치시켰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冒頓'을 '묵돌'이라고도 읽고 '묵특'이라고도 읽는다. 현대 중국 拼音字母로는 '當沒切(돌)'에 해당하는 음은 dù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頓'이 차자표기로는 '돈, 둔'은 물론이고, '돌, 둘' 또는 '도, 두' 등을 적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 '頓'의 聲符인 '屯(둔)'은 周易의 卦 이름으로는 '준'으로도 읽힌다는 점을 생각하면 '준, 주' 등의 音借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2]

'頓'은 우리 나라에서는 차자표기로 三國史記에 地名 '德頓'이 있고 同書와 三國遺事에 다 나오는 人名 '異次頓'이 있다. 地理志에 나오는 高句麗 地名 "德頓忽"의 '頓'은 '旦', '呑' 등[13]과 함께 '谷'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頓'은 15-16세기의 '돈'(東國正韻, 訓蒙字會)과 비슷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異次頓'의 '頓'은 '-髑, -覩, -蜀, -道, -獨' 등과 대응함을 볼 때, 終聲 'ㄴ'은 고려하지 않은 '도, 조(초)'에 가까운 音을 표기한 것 같다.

---

11) '頓'은 東國正韻에서 '돈'(二卷:27b)과 '돐'(二卷:28a)의 두 가지 音이 나온다.
12) 주역의 卦名 '屯(준)'은 '豬(저)倫(륜)切'이다.
13) 『三國史記』 卷37:4b의 "十谷縣一云德頓忽", "水谷城縣一云買旦忽" 및 6a의 "習比谷一作呑".

新羅 향찰에는 <怨歌>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나타난다.

(21) 汝於多支行齊敎因隱
仰頓隱面衣改衣賜乎隱冬矣也 <怨歌>

여기 '頓隱'은 대개 回想의 선어말 어미 '-더-'에 관형형(동명사형) 어미 '-ㄴ'이 붙은 '던'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14] '頓'은 '더'를, '隱'은 '-ㄴ'을 적었다고 볼 수 있겠다.[15] '頓'이 '더'를 적었다고 할 때 우리는 終聲 'ㄴ'은 때로는 고려하지 않고 표기하는 관례를 하나 더 보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頓部叱'의 '頓'이 어떤 음을 나타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중국과 한국의 한자음과 차자 표기를 살펴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으나, 이 글자가 나타내는 음은 우리말에서 '돈'을 중심으로 하여 '더, 도/두, 조/주' 등을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은 '部'에 대해서 살펴 보자.

'部'는 오른쪽의 '阝(邑)'이 形符, 왼쪽의 '音'가 聲符로 <廣韻>에 '裴古切, 蒲口切'로 나와 있고, 추정 古音은 biəu, piəu이다. 東國正韻에는 ':뿌, :뿌, :풉' 등으로 나오지만, 初聲의 'ㅱ, ㅍ'과 終聲의 'ㅱ' 및 傍點(:)은 古漢音의 再構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訓蒙字會와 같이 '·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6]

---

14) '頓'을 訓讀하여 '조을은'으로 읽은 小倉進平을 제하고는 다 音讀으로 하였는데 '던' 이외에 한자의 원음을 너무 의식하여 '돈'으로 읽은 경우(金善琪·徐在克), '둔'(李鍾·金俊榮)으로 읽은 경우도 있으나, 뜻은 모두 '던'이다. 다만, 兪昌均은 "信잇둔 그츠리잇가"의 '둔'과 같은 '둔'으로 처리하였다.

15) 물론 兪昌均의 경우처럼 '頓'이 이미 '둔'을 적고 '隱'은 添記하라고 볼 수도 있다.

16) 東國正韻에서는 당시의 現實音은 古漢音 全淸, 次淸, 全濁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全淸은 무조건 'ㅂ, ㄷ, ㄱ, ㅈ, ㅅ'으로, 次淸은 무조건 'ㅍ, ㅌ, ㅋ, ㅊ'로, 全濁은 무조건 'ㅱ, ㄸ, ㄲ, ㅉ, ㅆ'로 표기하여 漢字音의 "淸濁之

借字로 쓰인 예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서는 보기 어렵고, 均如 鄕歌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頓部叱' 이외의 형태의 예는 다음의 두 군데다.

(22)
今日部伊冬矣/南无佛也白孫舌良衣 <稱讚如來歌>
今日部頓部叱懺悔/十方佛體閟遣只賜立 <懺悔業障歌>

앞의 '部伊'나 뒤의 '部'나 모두 '주비'로 訓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난하게 보인다. 따라서 音讀으로 인정되는 '頓部叱'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頓部叱'의 '部'는 '부' 또는 이와 비슷한 음을 나타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고찰로 보아 '頓部叱'은 우선은 '*돈붓'에 가까운 음운 구조를 가진 단어를 적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말이 꼭 /돈붓(tonpus)/이라는 음을 가졌다고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頓'이라는 글자를 빌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말의 音節은 /돈/ 외에도 /둔, 던, 든, 돈/ 등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에는 있어도 漢字音에는 없는 음은 부득이 비슷한 음을 가진 글자를 빌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차자표기의 실상이다. 그러기에 '仰頓

變"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또 한 글자는 반드시 初·中·終聲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終聲 자리에 실제의 音價가 없는 'ㅇ, ㆁ'을 붙였다(初聲의 'ㅇ'은 지금까지도 쓴다). 超分節音도 중국 原音의 上聲과 去聲은 우리 나라에서는 뒤섞여서('上去無別') 上·去聲을 막론하고 약 80%는 2點韻('上聲')으로, 약 15%는 1點韻('去聲')으로 再編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東國正韻에서는 중국 原音이 上聲인 글자는 무조건 2점, 중국 原音이 去聲인 글자에는 무조건 1점을 찍었다. '部'에 대해 ':뿌'라고 표기한 것을 예로 들면 이 글자의 초성은 실제로는 'ㅂ'인데 古漢音이 全濁(並母)에 속하기 때문에 'ㅃ'을 썼고, 'ㆁ'이라는 終聲(韻尾)은 아무 音價도 없는 것이고, 실제의 超分節素는 1點韻(·)인데도 중국 원음이 上聲이기 때문에 2點(:)의 방점을 찍은 것이다.

隱'의 '-頓(隱)'이 '-던, -든, -돈' 등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반대로 정통 한자음대로 '-돈'으로 읽는 것이 도리어 해괴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終聲 'ㄴ'도 뒤의 '部'의 初聲이 'ㅂ'임을 생각하면, 그에 어울리는 /ㅁ/일 가능성도 있다(즉 /돔/). '仰頓隱'이 '울월-더-ㄴ'으로 분석된다고 생각하면, 終聲이 없는 말을 적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部'에 대해서도 /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브, ᄇᆞ/ 등의 주변음을 가상할 수 있다. 이런 우리말의 음운이 있더라도 한자음에 없기 때문에 '部'를 빌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釋讀口訣文의 '皆ᄀᆞᆺ'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高麗 鄕札 '頓部叱'은 '*돈붓'으로 읽어 두되, 이 표기가 나타내는 실제 單語는 '*돈붓/tonpus/'을 中心으로 하는 주변의 어떤 音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6. 結論

本稿는 원래 釋讀口訣文의 "皆ᄀᆞᆺ'이 어떻게 읽혔을까 하는 소박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문제를 추구해 나가는 過程에서 이와 관련된 '悉ᄒᆞ'의 문제가 끼어 들고, 여기 관련된 鄕札 표기를 일부 건드리다 보니 일이 좀 번거롭게 되었다. 그 대신 '皆ᄀᆞᆺ'에 대응하는 鄕札 뿐 아니라, '悉ᄒᆞ'에 대한 향찰의 片鱗도 더듬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은 "皆ᄀᆞᆺ에 대하여"라고 했다가 지금과 같은 제목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이 글에서 釋讀口訣文에 나타나는 "悉ᄒᆞ"와 "皆ᄀᆞᆺ"이 어떤 단어일까 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悉'과 '皆'는 한문에서 비슷하게 '다, 모두' 등의 뜻으로 해석되지만, 釋讀口訣文에서는 전자는 언제나 '悉ᄒᆞ'의 형태로만 나오고, 후자는 언제나 '皆ᄀᆞᆺ'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아 釋讀에서는 양자가 서로 다른 말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悉ㅈ'는 '아/어'에 해당하는 '-ㅈ'가 붙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다'에 대응하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이것은 고려 시대 鄕札 표기에 등장하는 '盡良'에 대응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盡良'은 訓借字 '盡'이 '다ᄋᆞ-'라는 동사 語幹 또는 語根을 보여 주는 데서 흥미롭고 이것은 釋讀口訣語 '悉ㅈ'가 '다아'라는 副動詞 단계에 있을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ㄷ'이라는 구결이 붙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한글로 된 문헌이나, 방언 등을 포함하여 마땅한 단어를 그리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鄭在永(1995)의 노력으로 '*닷' 또는 '*다ᄉᆞ'과 같은 再構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再構形을 떠나서 향찰 등 借字表記로 이미 나와 있는 語形 가운데서 대응어를 찾아 본다는 의도에서 高麗均如 鄕歌의 '頓部叱'을 '皆ㄷ'에 比定해 보았다. '頓部叱'과 '皆ㄷ'은 뜻이 共히 '모두, 다'이고 末音이 '叱(ㄷ)'을 共有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頓部叱'이 '모두, 다'의 뜻을 가지고 있음은 拙稿(1991)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頓部叱'이 어떻게 읽힌 단어였느냐에 대해서는 그 논문에서는 중세문헌에 나와 있는 단어에 중심을 두고 추구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었다. 그러나 1997년 2월의 구결학회 발표에서의 몇 분들의 충고에 따라, 기존의 단어와 관련 없이 독자적인 '頓部叱'의 독법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音借表記라는 가정하에 정통 한자음 중심으로 '돈붓'[17]이라는 한자음에 충실한 기준을 놓고 우리말 고유어의 음운 배합의 경향에 따라 융통성 있는 독법으로 '덤붓, 더붓' 등과 같은 "우리말다운" 讀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頓部叱'에 대한 讀法은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며,[18]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17) 이것은 '頓'과 '部'에 한한 것이고 '叱'은 너무나 유명한 借字이기 때문에 'ㅅ'으로 하였다.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 대해서는 同學 여러분의 따가운 叱正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鄭在永(1995)의 (21)에 제시된 鄕歌의 '皆'가 든 구절들을 보고 여기에 이끌리어 기왕이면 鄕札의 '皆'도 한 번 추구할 생각이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盡良'이라는 鄕札 표기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皆, 悉, 盡' 등의 글자가 漢文 원문과 借字 表記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게 된 것도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는데, 이들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3)

漢文(佛經)	釋讀口訣	高麗 鄕札	漢譯詩(頌)	備考
'皆'	'皆ㄴ'	'頓部叱'	'皆'	'돈붓'(덤붓,더붓)
'諸', '一切'	'諸ㄱ', '諸ㄴㄱ'	'皆'(1): '皆佛體' 등	'一切' 등	'모든', '모ᄃᆞ신'
'悉', '窮', '盡'	'悉ㅈ'	'盡良'	'窮',	'다아', '다'
[對當語 없음]	[對當語 없음]	'皆'(2): '伊知皆' 등	[對當語 없음]	音借?

최근에 國語學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釋讀口訣 연구는 鄕札 특히 고려 鄕札과 비교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有益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면의 연구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18) 너무 즉흥적인 생각 같아 당당히 내세울 수는 없지만 '頓部叱'을 '주비+ㅅ'으로 읽을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 '頓'의 聲符인 '屯'의 음은 '준'으로도 된다(周易의 卦 이름)는 생각과, '주비'가 '무리, 떼'의 뜻을 가지고 있기에 좀 비약하면 '다(all)'와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다.

참고 문헌

金斗燦(1987),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 硏究", 博士學位論文, 檀國大 大學院.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1)",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塔出版社.
金永萬(1991), "鄕歌의 '善陵'과 '頓部叱'에 대하여", 『東洋學』 21, 檀國大.
南權熙(1996), "高麗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 1.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華甲紀念)』, 塔出版社.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 硏究"(其一), 『東洋學』 15, 檀國大.
沈在箕(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國立博物館.
兪昌均(1994), 『鄕歌批解』, 螢雪出版社.
李東林(1982), "舊譯舊譯仁王經의 口訣 解讀을 위하여", 『論文集』 21, 東國大.
李丞宰(1993), "高麗本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鄭在永(1995),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太學社.